

축구의 매력에 빠진 그녀들: 대학여자축구 동아리 참여자 경험을 중심으로

김재운¹ · 박찬우²

¹경인교육대학교 교수 · ²서울대학교 강사

The Women Who Fall in Love with Soccer:
Focused on College Women Soccer Club Participant's Experience

Kim, Chaewoon¹ · Park, Chanwoo²

¹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²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focusing on the participation experience of college women students from the recent noticeable growth of college women's soccer club. To elaborate, this study aims to look into the pleasures of college women students participating in college women's soccer club and analyze the meaning of it. In order to solve this research question, in-depth interview and non-participant observation were conducted against 13 participants who had been actively participating college women soccer club for more than 3 year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ed. First, the college women students participating in college women's soccer club were experiencing pleasure from the attributes of soccer. Second, the participants felt pleasure of soccer from the feeling of bonding, that is 'us', from soccer. Third,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pleasure of soccer from playing soccer 'among women'. Considering that previous studies of women soccer were mostly analyzed by leisure restriction, such result shows that this study offers multilateral view of women soccer.

Key words : soccer, footballing pleasures, college women students, leisure culture

주요어 : 축구, 즐거움, 여대생, 여가문화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2A01025765).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Chanwoo

E-mail: ssamsuns@snu.ac.kr

Received: July, 06, 2021 Revised: September, 05, 2021 Accepted: September, 17, 202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방영되고 있는 <골 때리는 그녀들(SBS)>은 오늘날 여자축구에 대한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이민지, 2021.09.04.). 설 특집 프로그램으로 선보였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지난 2021년 6월 정규방송으로 편성되었고¹⁾, 프로그램에 대한 인기는 여자축구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생활체육으로서의 여자축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오지원, 2021.09.04.).

이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오늘날 대학여자축구 동아리에 참가하고 있는 여대생들의 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그녀들이 경험한 '축구의 매력'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대학여자축구 동아리는 여자축구의 저변 확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해되고 있다(KFA 여자축구 심포지엄, 2019). 대학여자축구 클럽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로 각 대학의 동아리와 그 참여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대학여자축구의 활성화 및 여자축구의 저변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조은정, 2011). 구체적으로 대학 여자축구 동아리는 2005년~2010년을 기점으로 매년 6~8개의 대학 클럽이 꾸준히 창단되면서 2019년도에는 약 48개의 대학 여자축구 동아리가 활동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창단된 동아리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참여 인원과 대학여자축구 동아리 관련 대회²⁾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오늘날 아

마추어 여자축구의 핵심적인 사례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여자축구를 이해하기 위한 다채로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여자축구 참여자들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여자 엘리트 축구선수의 성 역할과 역할 갈등 등에 관한 연구이다. 이는 여성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이 축구를 하면서 겪는 사회·문화적 편견과 구조적 혹은 개인적인 장애(barriers)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들이다(구창모, 2003; 권기남, 권순용, 2012; 권세영, 임수원, 2012; 황성하, 2016).

두 번째는 엘리트 여자축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변인들의 인과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다. 예컨대 여자축구 선수들의 자기효능감과 중요타자, 스트레스와 같은 다양한 변인들의 인과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이다(김민규, 김성대, 한동유, 2020; 이계윤, 김대욱, 2014; 장운덕, 김영란, 2019). 이러한 연구들은 여자축구에 참여하는 엘리트 선수들을 이해하고, 국내 엘리트 여자축구의 질적 성장을 위한 학술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생활체육을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학 여자축구 동아리 참여자들에게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편, Pfister(2015)는 축구와 관련된 학술적 지형은 주로 남성 지배적(male-dominant) 시각에서 이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축구에 참여하는 여성들을 이해하기 위한 다채로운 시각과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축구에 참여하는 여성들에 관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여성들이 축구를 하면서 경험하는 제약(constraints)과 장애(barriers)

1) <골 때리는 그녀들>은 2021년 SBS 설특집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방영되었고, 당시 시청률 14%를 기록하여 설 예능 1위를 차지하였다. 현재 정규방송 편성 이후에도 6~7%라는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다.

2) 대표적인 대학여자축구클럽 대회로 K-리그컵 여자대학클럽축구대회, 국민대학교 총장배 여자축구대회, 전국 대학 여자축구대회 사컵, 인천대학교 아마추어 여자축구클럽, 서울권 대학 여자축구클럽 대회 등이 개최되고 있다.

에 관한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양한 논의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Mayeza, 2017; Pielichaty, 2020; Themen & van Hooff, 2017; Woodward, 2017).

이러한 학술적 지형 속에서 여자대학 축구동아리의 하위문화적 특성을 다룬 연구(조은정, 2011)와 대학여자축구 동아리의 성장을 다룬 연구(장민기, 이근모, 장승현, 2019)는 대학여자축구 동아리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장민기 외(2019)의 연구에서는 창단 초기 대학여자축구 동아리 참여자들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참여자들의 부정적인 경험, 즉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와 관련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면서 오늘날 대학여자축구 동아리에 참여하는 여대생들의 다양한 경험과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여자축구 동아리의 성장 속에서 여대생들이 경험한 축구의 매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경험이 그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데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그동안 스포츠/여가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대학 스포츠동아리 참여를 지속하게 되는 요인으로 재미, 즐거움, 몰입 등이 중요하게 강조되어 왔다(강형길, 조희태, 2014; 장승현, 2018; 최지원, 이근모, 장승현, 2020). 즉, 스포츠 참가를 통해 느끼는 즐거움, 재미 등의 요인은 참가자들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참가하게 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강형길, 최민호, 2015; 김극국, 조현익, 원미애, 2013; 송리라, 전성범, 이철원, 2017; 염두승, 김덕임, 2009)

같은 맥락에서 대학여자축구동아리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대학여자축구 동아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기존의 부정적인 시각이 아닌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해하고,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들이 경험한 축구의 매력은 무엇인가?” 그리고 “대학여자축구동아리 활동은 그들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참여자들의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현재 대학여자축구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여대생들의 삶을 그들의 여가활동을 통해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기존 여자축구와 관련된 학술적 논의에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대학스포츠 동아리의 역할에 관한 논의의 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학여자축구 동아리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축구의 매력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심층면담, 비참여관찰, 현장노트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자료 수집 기간은 총 11개월로, 2019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진행되었다.

1. 연구 참여자

연구참여자 선정을 위해 질적연구방법 중 의도적 표본추출법(purposeful sampling) 중 사례인 기준(criterion) 표본 추출을 실시하였다. 사례인 기준 표본 추출은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선정 기준을 정하고 이를 통해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을 설정하여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첫째, 대학여자축구 동아리 활동을 3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둘째, 대학여자축구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각 팀에서 주도적인 위치, 예를 들어 동아리 회장 또는 주장을 경험하고, 동아리 활동에 꾸준히 참여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총 13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구분	이름	소속	나이	경력	포지션
1	이○○	A대학교	29	6년	DF
2	정○○	B대학교	23	3년	FW
3	강○○	A대학교	24	3년	DF
4	이○○	A대학교	23	3년	GK/DF
5	전○○	C대학교	29	6년	FW
6	김○○	A대학교	27	6년	DF
7	문○○	D대학교	23	3년	MF
8	신○○	D대학교	24	4년	MF
9	구○○	E대학교	24	4년	MF
10	김○○	F대학교	24	4년	FW
11	김○○	F대학교	24	4년	MF
12	김○○	G대학교	23	3년	DF
13	심○○	F대학교	23	3년	DF

*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가명을 사용하였음

2. 자료 수집

질적연구에서 자료 수집 과정은 매우 섬세한 작업이며, 연구의 맥락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설명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참여관찰(관찰노트), 심층면담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자료를 수집하였다(Creswell, 2012).

1) 비참여관찰(non-participant observation)

본 연구에서는 대학여자축구 동아리에 참여하는 여대생들의 경험, 훈련 및 대회 분위기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비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비참여관찰은 현장에서의 관찰을 토대로 기록하는 것으로 참여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경험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리의 훈련 및 연습 시합, 대회 등의 일정에 동행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연구참여자와의 라포(rapport) 형성

에 도움을 주었다. 비참여관찰을 통해 발생한 의문점과 내용은 관찰 노트를 작성하여 기록하였고,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 과정에서 추가적인 질문과 연구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2)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

본 연구는 심층면담을 통해 대학여자축구 동아리에 참여하는 여대생들의 참여 경험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심층면담은 선정된 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에서는 반구조화(semi-structured)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주요 질문으로는 크게 3가지로 첫째, 축구 동아리에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동기는 무엇인가? 둘째, 축구동아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 셋째, 축구의 즐거움, 재미, 매력은 무엇인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주요 질문을 토대로 면담은 대체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정보가 필요할 경우 면담을 요청하거나 온라인 메신저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면담은 연구참여자 마다 2회씩 실시하였으며, 장소는 참여자가 최대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장소(대학 강의실, 주변 카페)에서 진행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Creswell(2012)이 제시한 질적 연구자료 분석방법 6단계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수집된 전체 자료를 조직화, 둘째, 전체 자료 이해를 통한 공통된 아이디어를 획득한다. 셋째, 전사된 인터뷰에 대한 코딩 실시, 넷째, 중심주제 도출 및 맥락으로 기술, 다섯째, 결과 해석 단계로 수집된 연구자료와 기존 선행 연구, 연구자의 경험 등을 충분히 고려, 여섯째 연구의 의미를 제시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분석작업은 자료의 주제, 의미 파악 및 개념화하는 작업에서 전체적인 전·후 맥락을 고려

하여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심층면담 자료를 전사 한 후 연구 질문에 따라 자료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4.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성

질적연구에서 연구의 진실성과 윤리성을 확보 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서 Guba & Lincoln(1994)이 제시한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 구성원 간 검토(member check) 방식에 따라 검토하였다.

먼저 심층면담과 비참여관찰, 그리고 비참여관찰을 통해 작성한 현장노트 등 수집된 자료를 통해 삼각검증법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서 4명(박사2명, 박사과정 2명)으로 구성된 동료 간 협의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심층면담의 전사과정에서 참여자들에게 내용을 확인(member check)하는 과정을 통해서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질적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으며, 연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만둘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둘째, 연구결과에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정보를 기술하지 않았으며,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진행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의 개인 컴퓨터에 암호화하여 보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본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기존 여자축구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스포츠 참여에서 여성 참가자들의 제약(constraints)과 장애(barriers)와 관련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여자축구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긍정적인 경험을 살펴보려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Pfister, 2015).

이에 오늘날 대학여자축구 동아리에 참여하는 여대생들이 경험한 축구의 매력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여자축구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여대생들의 경험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첫째, 대학여자축구 동아리에 참여하는 여대생들은 축구 종목의 특성에 기인하여 축구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축구를 통해서 ‘우리’라는 감정을 경험하고, 팀원들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셋째, 대학여자축구 동아리에서 ‘우리끼리’ 축구에 참여하는 것은 연구참여자들이 하염없이 축구를 진지하게 즐기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 축구, 그 자체의 매력:

“마음껏 달리면서 공을 찰 수 있어서 좋아요.”

본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축구의 즐거움은 축구 종목, 그 자체의 매력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축구의 즐거움/매력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공통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었는데, “축구 자체가 정말 재미있어요.”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은 축구 종목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축구를 하면 재미있다. 축구가 재미있으니깐 하고 싶고, 제 경험에서 제일 재미있어요. (참여자 #4)

축구, 농구가 남자들한테 더 적합하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본능적으로 재미있는 스포츠라고 생각해요. (참여자#6)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축구의 즐거움을 축구 종목에서 경험하는 종목 자체의 매력으로 설명하고 있었다(Pielichaty, 2020). 진술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축구를 ‘본능적’으로 재미있는 스포츠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연구참여자들은 “공을 칠 때 그 느낌이 좋다.”, “넓은 운동장에서 달릴 때 희열을 느낀다.” 등과 같은 표현으로 축구를 할 때 경험하는 즐거움(footballing pleasures)을 표현하고 있었다.

축구만큼 즐거운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도 잘하면 누구 제치고, 크로스 올리면 너무 좋잖아요. (참여자#9)

같은 맥락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축구가 마음껏 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축구의 즐거움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설명하는 다른 종목과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참여자#11은 이전에 경험했던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비교하면서 축구가 더 힘들고 많은 움직임이 필요하지만, 그 점이 축구만의 매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참여자#4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녀는 “더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축구의 즐거움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었다.

더 많이 뛰고 싶고 더 숨이 찼으면 좋겠고, 더 땀이 났으면 좋겠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만큼 역동적이라는 게 축구의 매력인거 같고, 최근 들어서 느낀 건 그냥 축구만의 매력은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힘들고, 활발한 움직임이 좋아요. (참여자#11)

여러 명이 협동을 해서 경기가 많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넓은 코트에서 마음껏 달리면서 공을 칠 수 있는 건 축구라고 생각했어요. 농구도 많이 뛰기는 하지만 더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참여자#4)

이처럼 대학여자축구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여대생들은 종목 특성에서 축구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점은 연구참여자들이 이야기하는 종목 자체의 매력은 그들이 축구를 하면서 경험한 사회·문화적 시선과는 다르다는 점이다(장민기, 이근모, 장승현, 2019).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각기 다른 시기에 축구를 접하고 참여하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여성으로서 축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불편한 시선을 경험했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은 거 같아요. 어렸을 때 축구 한다고 하면, 어른들이 “여자가 무슨 축구냐?” 정말 많이 듣고, 운동해서 얼굴 까매져서 오면, “축구나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 듣는 거 보면, 아직 축구는 남자들의 소유? 이런 이미지는 떠오르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제가 직접 참여하는 입장에서 요즘은 그렇지 않고 남녀가 동등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죠. 아직 많이 부족하죠. (참여자#2)

학교에서 대회를 열면 무조건 여자는 피구대회를 나가야 하고, 남자는 축구대회를 나가게 돼서 항상 축구대회를 하면 저랑 뭐 다른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밖에서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대학에 오면 팀 소속으로 축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대학에 와서 축구를 하게 된 거 같아요. (참여자#13)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축구를 통해 경험한 축구 자체의 즐거움과 축구에 참여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스포츠/여가활동에 대한 ‘남

성' 혹은 '여성' 스포츠라는 사회·문화적인 고정관념은 연구참여자들에게 부정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여졌지만(장민기, 이근모, 장승현, 2019), 이러한 외부의 인식과 달리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축구 종목 그 자체에 매력을 느끼고 축구의 즐거움을 경험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홍지은, 임용석, 2018). 특히, 종목 자체에 대한 즐거움은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스포츠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전제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김한미, 2011; Pielichaty, 2020).

**2. 혼자가 아닌, '우리':
"함께하는 과정에서 뭉클한 감정이 들어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학여자축구 동아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우리'라는 감정을 축구의 매력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hemen & van Hoff, 2017). 이러한 측면은 축구를 통해 경험하는 관계적 측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축구를 통해 동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같이 있으면, 재미있고 행복해서 그런거 같아요. 행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축구를 안 하면 삶의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뭐가 딱 행복하다고 하기보단, 어떤 사건이 행복하다는 것보다는 그냥 거기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같이 운동을 하는 게 재미있어서 계속하는 거 같아요. (참여자#4)

팀 스포츠요. 많은 인원이 함께 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으쌰으쌰' 성과 이뤄내고, 성장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개인 스포츠, 혼자 하는 스포츠보다 더 많은 매력이 있는 거 같아요. (참여자#2)

이처럼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축구가 "함께 하는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즐거움을 경험한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참여자#1은 "축구는 다른 종목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인원이 한 번에 움직이고, 서로에 대한 희생과 배려가 필요한 종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비슷한 사례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대학 생활과 비교하면서 축구를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라는 감정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너무 다른 매력인데, 댄스는 보여주는 게 많은 거 같아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연습해도 사람들은 모르고, 댄스는 부딪치는 일이 크게 없어요. 기본적인 것만 잘 지키면 근데 축구는 약간 경기도 있고 그래서 감정이 고조되다 보면 친구들끼리 부딪칠 일도 많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끈끈해 지는 거 같아요. (참여자#7)

모든 과정에서 함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다른 쪽에서 경험해 본 적은 없나요?) 항상 준비과정은 따로였던 거 같아요. 완전히 다 나누어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도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이 플레이하는 게 있으니까 항상 같이 살 비비고 하는데 X까면 X도 치워주고(웃음) (참여자#10)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축구를 통해서 '우리'라는 끈끈한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처음부터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참여자#4는 축구동아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동아리에 대한 애정이 커지게 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1학기 때랑 2학기 때 제가 가진 운동부에 대한 애정이 달랐어요. 2학기 때는 대회도 많아지고, 축구부가 대학 생활에서 1순위가 되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습하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참여자#4)

여자 축구동아리 대회는 그들을 더욱 ‘우리’라는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었다. 대회에 참가하면서 함께 입은 ‘유니폼’과 경기를 시작하기 전 함께 외치는 ‘구호’는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의례와 같은 것이었다(신문규, 2016). 하지만 그들을 더욱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것은 경기장 안에서 함께 뛰는 경험이었다. 참여자 #4는 “대회를 뛰면서 한마음으로 골을 만들기까지의 노력이 모두에게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비단 골을 만드는 과정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참여자#3은 팀이 경기에서 지는 상황에서도 느끼게 된다고 한다. 그녀는 경기에서 실점했을 때 자신의 부족한 플레이 때문이라는 생각에서 속상한 마음을 갖게 됐지만, 경기가 끝나고 팀원들과 미팅을 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라는 감정 강하게 느끼게 된다고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대회에서 ○○○대학교에 지고, 다 나가서 축하해 주고 “우리가 잘했다 졌지만 잘했다.” 이렇게 해서 나갔던 게 기억이 나요. 승부차기였는데, 저희가 졌는데 결과가 나오자마자 양 팀이 다 달려 나간 거예요. 우리는 골키퍼에 가서, “우리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껴안고 있는데 그런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뭔가 좀 우리끼리라는 마음이 공동체 같은 여자 축구부라는 느낌이 확 들어서요. (참여자#3)

보는 바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대회를 준비하고, 경기를 뛰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을 공유하고 ‘우리’라는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축구를 통해 경험한 ‘우리’라는 끈끈한 감정은 축구 이외의 대학 생활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참여자#1의 진술에 따르면 축구 동아리를 통해서 축구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심사에 따라 각종 소모임도 함께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모임 식으로 처음에는 독서 모임도 했고, 만나서 소모임 식으로 많이 했어요. 종합체육대회 농구도 나가고, 그런 족석도 있고, 보드게임 이런 소모임을 계속 만들었어요. 관심사 비슷한 사람들끼리 중간에 공부를 같이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계속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그런 걸 소중히 하는 사람들이 남는 거 같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초창기 구성원에서 다른 과에서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치전 준비할 때는 2년 동안 못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 나중에 꼭 축구를 같이 안 하더라도 모임에 나온다면가 아니면 오비전은 언니들도 다 늙어서 서로 못 뛰거든요. 그런 모임에 와서 ‘옛날에 이렇게 했었지’ 하고 그러죠. (참여자 #1)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대학 여자 축구동아리를 참여하고,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라는 끈끈한 감정을 경험하고,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강희엽, 이철원, 김형훈, 2015). 이는 오늘날 극심한 취업난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대학 내 퍼지고 있는 ‘혼밥족’, ‘자발적 아싸(아웃사이다)’ 등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 문화와는 상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주간동아, 2016.01.05.). 즉, 대학여자축구 동아리 참가자들의 경험은 오늘날 파편화되고 개인화되고 있는 대학생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대학여자축구클럽 참여를 통해 경험하는 ‘우리’라는 감정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3. 오직, 우리들의 축구: “여자들끼리 축구를 하는 게 좋아요”

앞서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여자축구 동아리를 통해서 ‘축구 그 자체’를 즐기고, ‘우리’라는 감정을 느끼면서 축구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연구참여자들에게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대학여자축구 동아리는 ‘여자끼리의 축구’라는 점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자들에게 대학 여자 축구 동아리는 ‘여자끼리’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매력을 느끼고, 지속적인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일단은 마음이 더 편한 거 같아요. 동성끼리 한다는 게 확실히 편하고요. 의사소통하더라도요. 여학생들끼리 운동하는 게 엄청 즐거운 경험인 거 같아요. 다른 운동보다도. 그래서 재미있고, (참여자#3)

여자 축구동아리가 다른 동아리와 다르게 여자들만 모여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 같아요. (참여자#2)

이러한 진술은 다른 연구참여자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다. 그들에게 ‘여자끼리’ 축구를 하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를 더 자유롭게 진지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참여자#7은 “대학 내에 다양한 체육 관련 동아리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여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한다. 참여자#7이 대학 여자축구 동아리에 참여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체육 관련인데, 여자가 붙은 게 편할 거 같아서 하게 되었어요. 이야기한 것처럼 체육 분과에 많은 종목이 있는데, 저희가 들어가면 실제로는 매니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자가 실제로 뭘 수 있는 경기나 스포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중략)... 제가 사람들을 좋아하고 같이 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뭘 하지? 생각하다가 여자 축구동아리를 시작하게 된 거죠. (참여자#7)

이러한 인식은 학창 시절부터 경험한 체육활동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참여자#10은 학창 시절부터 자신이 경험했던 축구 경험과 함께 설명하고 있었다.

중학교 때 좋아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거 같아요. 놀거리가 그냥 저희에게 운동장은 개방된 공간으로 생각되지 않았어요. 항상 남자애들 축구하고 판이 깔려있으니깐, 그 옆에서 피구공 몇 번 던지고 들어오고 이 정도니깐. (같이 축구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끼려면 잘해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막 해서 잘해야 되고, 여자가 거기서 하려면 남자애들한테 인정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죠. 솔직히 실력 없는 여자애가 같이한다고 하면 남자애들은 재미 없으니깐. 분명히 남자애들도 못하는 애들 많은데, 여자애들은 팀 들어가면 각두기 같은 느낌? 그게 너무 당연하게 된 거 같아요. (참여자#10)

연구참여자의 진술처럼 다른 종목의 경우 주로 남성 위주로 동아리가 운영됨으로써 여학생들은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이창섭, 남상우, 여정권, 2013), 대학여자축구 동아리는 여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즐길 수 있는 종목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슷한 사례로 참여자#2는 대학여자축구 동아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여자들만 모여 있으면 더 편하죠. 훨씬. 그런 분위기 측면에서 혼성 동아리와 차이가 많은 거 같아요. 저는 배구 여자부 활동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남자부 여자부 같이 있는 동아리거든요. 훈련을 같이하지는 않는데, 불편한 느낌이 들게 되죠. 특히 대학 동아리 측면에서 대학 내에서 남자 동기 선배 후배랑 어울리는데 불편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많은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자끼리 있는 건 더 즐길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참여자#2)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같은 동성끼리 축구를 하는 것은 축구에 즐거움을 느끼고,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이러한 설명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축구로 인해 얼굴이 까매지는 것과 머리 스타일에 관한 이야기였다. 참여자들이 이야기하는 얼굴이 타고, 쇼트커트로 머리를 자르는 것은

단순히 축구를 더 잘하고 싶고, 즐기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변화일 뿐이라 설명하면서 여자끼리 축구를 즐기기 때문에 축구 이외의 사소한 것들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한다.

요즘은 막 여자들이 힘든 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자기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관리를 막 하지만, 결국은 그게 소용이 없잖아요. 밖에서 하고. 그리고 여자끼리밖에 없고 그러니까 (참여자#6)

이처럼 오늘날 대학여자축구 동아리 참여자들에게 ‘여자끼리 축구를 하는 것’이 ‘왜 그들에게 즐거운 경험’으로 설명되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그동안 여학생들의 여가/스포츠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학술적 논의 속에서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위한 그들의 인식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사례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김동식, 장용규, 2015).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여자축구 동아리에 참가하는 여대생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축구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참가자 13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자료는 비참여관찰, 심층면담 등을 통해 수집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서 대학여자축구 동아리에 참여하는 여대생들의 경험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여자축구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축구의 종목 특성에서 매력을 느끼고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축구를 본능적으로 재미있는 스포츠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넓은 운동장에서 땀흘리고 공을 차는 것’ 등의 표현을 통해서 축구의 매력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한국사회에서 여자

가 축구를 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여자축구 동아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우리’라는 끈끈한 감정을 경험하고, 축구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여대생들은 축구를 통해서 관계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축구를 함께하는 과정에서 ‘우리’라는 끈끈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축구를 하는 공간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만의 축구’에서는 ‘여자끼리’ 함께 축구를 한다는 것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여자축구 동아리에서 ‘동성끼리’ 축구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측면은 연구참여자들이 하여금 축구를 더욱 진지하게 즐길 수 있는 측면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 대학여자축구 동아리의 두드러진 성장 속에서 참여자들이 경험한 축구의 매력과 그 내포된 의미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여자축구와 관련된 연구가 주로 참여 제약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축구에 참여하는 여대생들의 경험은 기존 학술지형에 다각적인 시각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대생들의 경우 학창시절 축구를 경험했지만, 대다수의 경우 대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에 축구를 할 기회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이창섭, 남상우, 여정권, 2013).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여대생들의 자발적인 동아리 참여와 축구를 통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해주고 있었으며, 축구를 즐길 기회로 이해되고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여자축구 동아리를 통해서 경험한 축구의 즐거움이 대학 졸업과 동시에 멀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축구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단절된 경험에 주

목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Clark & Paechter, 2007).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학축구연맹에 등록된 대학여자축구 동아리에 참여하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각 대학의 개별적인 축구동아리 문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서 각 축구클럽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문화를 이해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작업은 여자축구 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라 판단된다. 여자축구와 관련된 다채로운 후속 연구를 통해서 여자축구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다양한 학술지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형길, 조희태(2014). 대학생의 신체 여가활동에서의 여가태도, 즐거움, 몰입경험에 대한 분석 모형.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8(1), 33-42.
- 강형길, 최민호(2015). 청소년의 강도별 신체적 여가 활동 참여와 즐거움, 시간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9(4), 56-70.
- 강희엽, 이철원, 김형훈(2015). 축구 참여 여대생의 진지한 여가, 신체적 자기개념 및 자아성취감의 관계. *여가학연구*, 13(4), 39-56.
- 고은하(2016). *스포츠문화의 문화적 전환과 여성스포츠*. 한국여성체육학회 학술세미나자료집, 37-42.
- 고은하, 신동성, 이용식, 김혜자, 이용수, 김숙(2004). *여자축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서울: 동원피엔지.
- 구창모(2003). 여자축구선수의 성역할 정체감 연구.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6(2), 279-293.
- 권기남, 권순용(2012). 여자축구선수들의 성 정체성 갈등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체육학회지*, 51(3), 39-51.
- 권세영, 임수원(2012). 감독 권력에 대한 대학 엘리트 여성축구선수의 순응.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5(4), 109-125.
- 권세영, 임수원, 이원희(2012). 한국 여자축구 리그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에 관한 질적 접근. *한국체육학회지*, 51(2), 63-76.
- 김근국, 조현익, 원미애(2013). 신체활동 즐거움이 체육수업의 내적동기, 재미 및 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2(4), 511-530.
- 김동식, 장용규(2015). 여학생 체육활성화 담론의 전개 과정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2(4), 1-19.
- 김민규, 김성대, 한동유(2020). 청소년 여자축구 선수들의 자기효능감, 중요타자의지지 및 진로결정수준 간 구조관계 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29(1), 75-92.
- 김수현(2010). 여성의 여가제약 및 여가제약협상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4(2), 167-178.
- 김인형(2016). 보수적 스포츠에의 또 다른 도전: 여성야구인들의 갈등과 대응. *한국체육학회지*, 55(2), 81-93.
- 김한미(2011). 교육을 억압하는 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햇살 테니스회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14(2), 1-26.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송리라, 전성범, 이철원(2017). 라인댄스 참여 중장년 여성의 재미요인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6(3), 113-124.
- 신문규(2016). 사회적 죽음과 생존, 냉소와 꿈 사이에서: K3 리그 축구선수 정체성의 구성.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9(3), 27-55.
- 염두승, 김덕임(2009). 시니어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재미요인과 즐거움요인과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18(3), 251-258.
- 오지원(2021.09.04.). *골 때리는 노는 언니는 어떻게*

- 대세가 됐다. YTN. 2021년 9월 4일 검색, https://star.ytn.co.kr/_sn/0117_202109040800016556
- 이계운, 김대옥(2014). 여자축구선수들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한국체육과학회지*, 23(5), 527-535.
- 이민지(2021.04.22.). '골 때리는 그녀들' 경기 시작 되자 시청률도 상승. Newsen. 2021년 9월 4일 검색. https://www.newsen.com/news_view.php?uid=202108260656342410
- 이창섭, 남상우, 여정권(2013). 고등학교 여학생의 신체활동 저해요인의 종합적 이해.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7(4), 57-76.
- 장민기, 이근모, 장승현(2019). 대학여자축구동아리 성장기: 동아리 결성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2(1), 35-46.
- 장승현(2018). 그들은 왜 배구에 미치는가?: 교육대학교 내 배구동아리활동의 의미. *한국체육학회지*, 57(3), 29-40.
- 장윤덕, 김영란(2019). 여자축구 선수들의 사회적 지지와 운동지속 간 경로에서 과제목표성향의 조절효과 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2(4), 1-18.
- 조은정(2011). 여자대학 축구동아리 선수의 하위문화적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주간동아(2016.01.05.). 자발적 '아싸'(아웃사이더)가 넘쳐난다. 2020년 3월 2일 검색, <https://weekly.donga.com/3/all/11/174944/1>
- 최지원, 이근모, 장승현(2020). 스포츠 클라이밍의 매력과 문화특성. *한국체육학회지*, 59(6), 41-53.
- 홍지은, 임용석(2018). 스포츠 속 구현된 젠더고정관념에 대한 소고: 성과 상반된 젠더유형 스포츠 참여경험을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6(2), 161-215.
- 황성하(2016). 여자축구 선수의 성 역할 갈등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체육학회지*, 55(1), 61-73.
- Clark, S., & Paechter, C. (2007). 'Why can't girls play football?' Gender dynamics and the playground. *Sport, education and society*, 12(3), 261-276.
- Creswell, J. W. (2012).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London: Sage.
- Fendt, L. S., & Wilson, E. (2012). 'I just push through the barriers because I live for surfing': how women negotiate their constraints to surf tourism. *Annals of Leisure Research*, 15(1), 4-18.
- Guba, E. G., & Lincoln, Y. S. (1994).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2(163-194), 105.
- Mayeza, E. (2017). 'Girls don't play soccer': Children policing gender on the playground in a township primary school in South Africa. *Gender and education*, 29(4), 476-494.
- Pfister, G. (2015). Assessing the sociology of sport: On women and football.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50(4-5), 563-569.
- Pielichaty, H. (2020). Pleasure and the Sanctuary Paradox: Experiences of girls and women playing soccer.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55(6), 788-806.
- Scruton, S., Fasting, K., Pfister, G., & Bunuel, A. (1999). It's still a man's game? The experiences of top-level European women footballers.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34(2), 99-111.
- Themen, K., & van Hooff, J. (2017). Kicking against tradition: women's football, negotiating friendships and social spaces. *Leisure studies*, 36(4), 542-552.
- Woodward, K. (2017). Women's time? Time and temporality in women's football. *Sport in Society*, 20(5-6), 689-700.